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의존 명사 하위 범주 분류

유재원
한국의국어대학교 언어학과

Subcategorization of Dependent Nouns for NLP

Jaewon Y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약

의존 명사와 이를 꾸미는 관형어는 통사적으로 긴밀한 언어학적 단위를 이루므로 의존 명사에 대한 하위 범주 분류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국어 문법에서는 이 문제가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 사전(조계수 1997)에 올라 있는 의존 명사 600여 개를 허용(1996)의 분류 기준을 보완하여 일관성 있게 하위 범주 분류를 시도하였다. 또 수량 단위 명사는 앞에 오는 수사의 종류에 따라 더 세분하였다.

1. 들어가기: 목적

의존 명사란 "앞에 반드시 꾸미는 말이 와야 제대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앞에 관형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태론적으로는 구속 형태이나, 속뜻으로는 명사가 가지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면서, 통사적으로는 다른 일반 명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와 함께 쓰이거나 단독으로 쓰여 문장의 여러 성분을 이룬다. 또 일부 의존 명사는 지정사 "이다"를 취하여 서술어를 만들기도 한다.(허용 1996:206-209, 240)

의존 명사 앞에 오는 관형어의 품사와 형태는 의존 명사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의존 명사 구문의 특성을 밝히고, 그 특성에 따라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를 분류하는 일은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의존 명사를 앞뒤에 오는 낱말과의 "공기 관계(collocation relationship)"에 따라 분류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는 이주행(1986)이었다. 이주행은 의존 명사를 앞에 오는 관형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이어서 뒤에 오는 조사와 지정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주행의 논문에는 의존 명사의 중요한 범주를 이루는 수량 의존 명

사와 부사적으로 쓰이는 의존 명사에 대한 논의가 없다. 허용(1996:242-296)은 의존 명사를 의존 명사 구문의 통사적 기능과 앞뒤에 오는 낱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 의존 명사의 통사적 기능에 따라

ㄱ) 명사처럼

[1] 일반 의존 명사: 일반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

[2] 수량 의존 명사: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것

ㄴ) 부사처럼 쓰이는 의존 명사

나) 의존 명사의 분포에 따라

ㄱ) 앞에 오는 말에 따라

[1] 체언, 관형사, 관형사형 어미가 자유로이 오는 것

[2] 관형사형 어미만 오는 것

[3] 체언만 오는 것

ㄴ) 뒤에 오는 말에 따라

[1] 여러 가지 조사와 지정사 "이다"가 자유로이 오는 것

[2] 뒤에 오는 말이 자유롭지 못한 것

허용의 분류는 가장 발전된 것이나 국어 사전(조재수 1997)에 실린 600여 개의 의존 명사를 실제로 분류하는 데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실제 분류 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허용(1996)이 제시한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 분류 기준보다 더 자세하고 일관성 있는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 분류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 의존 명사 구문의 특성

의존 명사 구문의 특성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Spec Ndep-({Tossi, Jab})]_(NP, ADVP)

(Spec: 관형어, Ndep: 의존 명사, Tossi: 조사, Jab: 지정사 "이다", NP: 명사구, ADVP: 부사구)

위의 구문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Ndep(의존 명사)이다. Ndep는 앞에 놓이는 Spec(관형어)을 지배하여 관형어의 품사와 형태를 결정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낱말도 지배하여 어떤 조사가 올 수 있는가 또는 지정사 "이다"가 결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의존 명사가 어떤 종류의 관형어를 취하는가에 따라, 또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하위 범주를 분류할 수 있다. 또 의존 명사 구문 전체가 문장 안에서 명사적 기능을 하는가 아니면 부사적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하위 범주를 구분할 수도 있다.(허용 1996:244)

3.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 분류

3.1 통사적 기능에 따른 분류

의존 명사 구문은 격조사를 취하여 일반 명사 구문과 같이 문장의 여러 가지 성분을 이루기도 하고, 또는 부사격 조사와 함께 쓰이거나 단독으로 쓰여 부사구처럼 쓰이기도 한다.

- 3-1) 저기 보이는 것이 우리 집이다
- 3-2) 네가 아는 것을 말해라.
- 3-3) 이 연장은 자주 쓰는 것이다.
- 3-4) 네가 아는 대로 말해라.
- 3-5) 바람에 나무가 뿌리 채 뽑혔다.
- 3-6) 필요한 만큼 가져 가라.

의존 명사 "것"은 예문 3-1)과 3-2)에서 각각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취하여 주어와 목적어 기능을 하고, 3-3)에서는 지정사 "이다"와 결합하여 문장의 서술어를 이루고 있다. 반면 예문 3-4) ~ 3-6)에서 의존

명사 "대로", "채", "만큼"은 곧바로 서술어와 연결되어 부사어처럼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의존 명사는 통사적 기능에 따라 "명사적 의존 명사"와 "부사적 의존 명사"로 구분된다.

3.2 관형어 종류에 따른 분류

의존 명사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관형어의 종류에 따른 것이다. 의존 명사 구문의 Spec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관형어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1) 관형사: 새, 모든, 무슨,
- 2) 관형사형 어미: -은, -는, -던, -을,
- 3) 체언:
 - (ㄱ) 수사 및 수관형사: 열, 백, 한, 두, 여러,
 - (ㄴ) 대명사: 우리, 저희, 그들,
 - (ㄷ) 명사: 사람, 건물, 사건,
 - (ㄹ) 용언의 명사형 어미: -기, (-음)

의존 명사 앞에 어떤 종류의 관형어가 오느냐 하는 문제는 의존 명사의 고유한 어휘적 특성의 하나인 "공기 관계(collocation relationship)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예문 3-7) ~ 3-11)에서 보듯 의존 명사 "것"은 세 종류의 관형어를 모두 취할 수 있으나, "바"와 같은 의존 명사는 관형사형 어미만을 취할 수 있다. 반면 "때문"은 오직 체언만을 관형어로 취할 수 있다.

- 3-7) 새 것이 좋다.
- 3-8) 아직 술 수 있는 것을 왜 버리니?
- 3-9) 이 연필은 그 사람(당신) 것입니까?
- 3-10)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 3-11)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자식(무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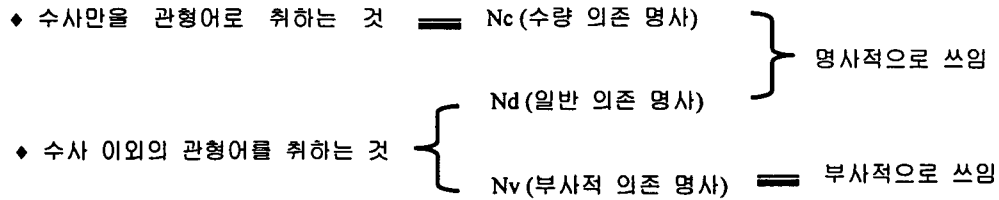
의존 명사를 앞에 오는 관형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때 중요한 사실은 "것"처럼 "순수 관형사"를 관형어로 허용하는 의존 명사는 관형사형 어미와 체언도 역시 관형어로 두루 허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순수 관형사"를 관형어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은 관형사형 어미나 체언 한쪽만을 관형어로 취한다. 따라서 의존 명사는 "순수 관형사"와 다른 종류의 관형어 모두를 취하는 "제 1부류 의존 명사", 관형사형 어미만을 취하는 "제 2부류 의존 명사", 체언만을 취하는 "제 3부류 의존 명사"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서 "순수 관형사"란 사전에 관형사로 다루어진 말들 중에서 "수관형사"를 제외한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존 품사 분류에서는 "한, 두, 한두, 세(서, 석), 네(너, 녀), 서너, 다섯, 여섯, 스무, 여러, 몇"을 모두 수관형사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의 분포는 "새, 무슨,

모든"과 같은 순수 관형사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수관형사들은 "것"과 같은 의존 명사 앞에 올 수 없다. 반면 순수 관형사들은 "개(個)", "장(張)", "명(名)"과 같은 수량 의존 명사 앞에 쓰일 수 없다. 이런 분포의 차이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연어 처리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좀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 품사론에서 수관형사로 다루어진 낱말들은 모두 수사로(좀더 정확하게 관형어적 수사로) 다루어야 일관성 있는 문법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제 3부류 의존 명사" 중에 명사의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수량 의존 명사"는 오직 수사만을 관형어로 취하고 절대로 다른 종류의 체언을 관형어로 취하지 않는다. 즉 수량 의존 명사와 다른 의존 명사는 수사를 관형어로 취하는가 취하지 않는가에 따라 서로 배타적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의존 명사를 수량 의존 명사와 나머지 의존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의존 명사를 통사적 기능과 앞에 오는 관형어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통사적 기능과 앞에 오는 관형어 종류에 따른 의존 명사의 분류 >

3.3 뒤에 오는 낱말과 결합이 자유로운 정도에 따른 분류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를 구분하는 세 번째 기준은 뒤에 오는 말과 결합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예문 3-12) ~ 3-15)에서 보듯, "것"과 같은 의존 명사는 여러 조사나 지정사 "이다"와 자유로이 결합하는 반면, "따름"과 같은 의존 명사는 조사와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고 지정사 "이다"와만 결합 한다. 또 "때문"은 지정사 "이다"와 처소격 조사 "에"와 일부 특수 조사가 뒤에 올 수 있다. 따라서 의존 명사는 뒤에 오는 낱말이 비교적 자유로운 "a 유형"과 자유롭지 못한 "b 유형"으로 분류된다.

- 3-12) 새 것이, 새 것을, 새 것에, 새 것은, 새 것이다.
- 3-13) 관망이나 할 따름이다.(*따름이, *따름을, *따름에,.....)
- 3-14) 비 때문에 소풍이 취소되었다.
비 때문은(도,만은) 아니었다.
- 3-15) 내가 섭섭한 것은 그 일 때문이다.

의존 명사를 뒤에 오는 낱말과 결합이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일반 의존 명사에만 필요한 일이다. 수량 의존 명사는 일반 명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사나 지정사와의 결합이 자유로우므로 항상 "a 유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수량 의존 명사에는 "a 유형"

표지는 할 필요가 없다. 반면 부사적으로 쓰이는 의존 명사들은 모두 뒤에 오는 조사가 제약을 받으므로 "b 유형"에 속한다.

3.4 수량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 세분화

한국어의 수사 체계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복잡하게 얽혀 쓰이고 있다. 특히 수량 단위 명사가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에 따라 고유어 수사가 쓰일 것인가 아니면 한자어 수사가 쓰일 것인가가 결정 되는 일이 많다. 채완(1983:20-24)이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고유어 수량 의존 명사에는 고유어 수사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한자어 수사와의 연결은 어색한 경우가 많다. 또 차용된 지 오래된 한자어 수량 의존 명사도 고유어 수사와 연결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자어 수사 체계가 점차 우세해져 고유어 쪽을 대신해 가고 있다. 십 미만의 수에서는 고유어 수사 체계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이십 이상의 수에서는 한자어 수사가 고유어 쪽을 침투해 들어와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던 수량 의존 명사들도 이십 이상 되는 수와 결합할 때는 한자어 수사를 허용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수사의 차용이 작은 수보다는 큰 수에서 더 쉽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서양에서 차용된 수량 의존 명사인 "미터, 그램, 킬로그램, 리터, 씨씨" 따위가 십 미만의 수에서마저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지 않고 항상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수량 단위 명사를 앞에 오는 수사가 고유 수사인가 아니면 한자어 수사인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더 세분하였다.

- Nca: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 모두를 취하는 것.
- Ncb: 스물 이상 수에서 한자어 수사를 취하는 것.
- Ncc: 한자어 수사만을 취하는 것.
- Nch: 고유어 수사만을 취하는 것.

3.5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 분류 종합

위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를 다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Nc: 수량 의존 명사
 - Nca: 고유어와 한자어 수사 모두와 결합.
 - Ncb: 이십 이상 수사에서 한자어 수사와 결합.
 - Ncc: 한자어 수사와만 결합.
 - Nch: 고유어 수사와만 결합.

- Nd: 일반 의존 명사
 - Nd1a: 모든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자유롭게 결합.
 - Nd1b: 모든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 Nd2a: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 뒷말과 자유롭게 결합.
 - Nd2b: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 Nd3a: 체언류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자유롭게 결합.
 - Nd3b: 체언류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 Nv: 부사적 의존 명사
 - Nv1b: 모든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 Nv2b: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 Nv3b: 체언류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3.6 제 2차 의존 명사의 하위 범주 분류: 세분화

의존 명사를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인 "관형어 종류에 따른 분류"는 각 관형어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는 의존 명사의 경우, 요구되는 관형사형 어미가 "-은"인가 "-는"인가 아니면 "-을"인가에 따라 더 나눌 수 있고, 체언을 취하는 의존 명사도 명사만 요구하는가 아니면 명사형 어미도 용인하는가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 의존 명사 "것"은 관형사형 어미 중 "-은"과 "-는", "-을" 모두를 허락하지만, "터"는 "-을"만을 허락하고 "말"은 "-는"과 "-던"만을 허락한다. 또 체언을 관형어로 취하는 "딴"은 주로 대명사와 어울리고 명사형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으나 "때문"은 명사와 명사형 어미 모두를 취한다. 이런 구체적

형태까지를 고려한 하위 범주 분류는 사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부록의 예 참조)

- 3-16) 먹은 것, 쓰던 것, 먹는 것, 먹을 것,
- 3-17) 관망이나 할 터이다. *관망이나 한 터이다.
관망이나 하는 터이다.
- 3-18) 읽는 말에 다 읽자. *읽은 말에 다 읽자.
*읽을 말에 다 읽자.
- 3-19) 내가 섭섭한 것은 그 일 때문이다.
- 3-20) 자기 댐에는, 내 댐에 할 만큼 했다.
*먹었기 댐에
- 3-21) 그 사람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4. 마무리: 분석 결과와 남은 문제들

이 연구에서 의존 명사의 하위 분류를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들을 실제로 적용하여 국어 사전(조재수 1997)에 다루어진 의존 명사를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존 명사의 총 수: 613 개

Nc: 468 개	Nca: 31 개
	Ncb: 65 개
	Ncc: 224 개
	Nch: 148 개
Nd: 129 개	Nd1a: 29 개
	Nd1b: 10 개
	Nd2a: 15 개
	Nd2b: 25 개
	Nd3a: 36 개
	Nd3b: 14 개
Nv: 16 개	Nv1b: 4 개
	Nv2b: 14 개
	Nv3b: 1 개

이해력과 융통성이 없는 기계가 자연어를 처리하게 처리하는 데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세워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 한국어 문법에서 수관형사로 다루었던 낱말들을 수사로 다루므로써, 의존 명사 하위 분류를 일관성 있게 세울 수 있었다.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이런 수정은 불가피하며, 다른 문법 범주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어떤 낱말들을 의존 명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때", "전(前)", "동안", "뒤", "후(後)"와 같은 명사들은 "시간절(temporal clauses)"을 이끌 때, 의존 명사로 쓰이는 듯하나 사전에는 아직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아울러

다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희(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 제 12 호, 한국어언어학회
- _____ (1981) "부류셈술날달로서의 셈가름말", 배달말 제 6 호, 배달말학회
- _____ (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구문의 분석", 탑출판사
- _____ (1991) "문장 셈술말의 대격 표지",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김창근(1976) "현대국어의 '매김씨' 처리에 대한 관견", 새국어교육 제 24 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_____ (1984) "앞가지와 매김씨의 발달", 두메 박지홍 선생 회갑 기념 논문집, 문성출판사
- 남기심(1991) "불완전명사 '것'의 쓰임",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서원호(1980) "관형사와 접두사의 한계설정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 9 호, 학교법인 동아학원
- 성광수(1976) "불완전 명사 + '하(다), 이(다)'에 대한 생성론적 분석", 어문논집 제 17 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유동준(1983) "국어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제 89 호, 국어국문학회
- 이주행(1986) "불완전명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신연구, 약천 김민수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이현규(1987) "셈매김씨에 대하여", 한글 제 196 호, 한글 학회
- 정영주(1989) "셈술매김씨의 의미 연구", 제효 이용주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도서출판 한샘
- 정호완(1982) "불완전명사의 분포 제약에 대한 고찰", 국어학 논총, 형설출판사
- _____ (1983) "의존명사의 굴곡어미 형성고", 국어국문학 제 90 호, 국어국문학회
- 조재수 편찬(1997) "한국어 전자 사전", 한글 토피아
- 채완(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제 191 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한영목(1980) "국어 관형사의 연구", 장암 지현영 선생 고회 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 _____ (1985) "관형사와 접두사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8 호, 목원대학교
- 홍양추(1987) "메인이름씨의 일반적 특징", 건국어문학 제 11 ·12 호 합본호,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 허용(1987) "20 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부 록 : 의존 명사 분류의 예

Nc: 수량 의존 명사

Nca: 고유어와 한자어 수사 모두와 결합.

가구¹(家口) {명}(의존) 각 살림을 하는 가정을 세는 단위. *세 ~가 한 집에서 산다.

{POS Noun

SubCat Nca

PreWord NumK NumH NumCa NumCb

NumG

PostMorph Null Tossi Jab}

명⁷(名) {명}(의존) 사람의 수를 세는 말. *한 ~. *열 ~.

{POS Noun

SubCat Nca

PreWord NumK NumH NumCa NumG

PostMorph Null Tossi Jab}

Ncb: 이십 이상 수사에서 한자어 수사와 결합.

군데 {명}(의존) 날날의 곳. *한 ~. *여러 ~.

{POS Noun

SubCat Ncb

PreWord NumK NumH NumCa NumG

PostMorph Null Tossi Jab}

포기¹ {명}(의존) 초목의 날개를 세는 단위. *소나무 한 ~. *풀 몇 ~.

{POS Noun

SubCat Ncb
PreWord NumK NumH NumCa NumG
PostMorph Null Tossi Jab}

Ncc: 한자어 수사외만 결합.

개월(個月) {명}(의존) (한자말 숫자 따위의 아래에 쓰이어) 달 수를 나타내는 말. *삼 ~. *몇 ~.

{POS Noun
SubCat Ncc
PreWord NumCa NumCb NumG
PostMorph Null Tossi Jab}
그램(英 gram) {명}(의존) 미터법에 따른 무게의 기본 단위. 4℃의 물 1㎤의 무게를 표준으로 한다. 기호는 g 또는 gr.

{POS Noun
SubCat Ncc
PreWord NumCa NumCb NumG
PostMorph Null Tossi Jab}

Nch: 고유어 수사외만 결합.

걸음 {명}(의존) 두 발을 번갈아 옮겨놓는 동작의 수를 세는 단위. *한 ~. *두 ~.

{POS Noun
SubCat Nch
PreWord NumK NumH NumG
PostMorph Null Tossi Jab}
토막 {명}(의존) 잘라진 하나하나의 부분의 단위. *생선 한 ~. *한 ~의 이야기.

{POS Noun
SubCat Nch
PreWord NumK NumH NumG
PostMorph Null Tossi Jab}

Nd: 일반 의존 명사

Nd1a: 모든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자유롭게 결합.

따위 {명}(의존) (다른 말 아래에 쓰이어) '그와 같은 종류'의 뜻을 나타냄. *두부, 콩나물 ~의 찬거리를 샀다. *그런 ~.

{POS Noun
SubCat Nd1a
PreWord Nf KwDem AdnN
PostMorph Tossi Jab}

Nd1b: 모든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김^4 {명}(의존) (주로, '-ㄴ/-는/-던 김에'로 쓰이어) '기회'를 나타냄. *말이 나온 ~에 한 마

디 더 하겠다. *가는 ~에 이것을 좀 전해 주게. *고향을 찾았던 ~에 옛 친구도 만났다.

{POS Noun
SubCat Nd1b
PreWord AdnD AdnE AdnN
PostMorph Loc{에}}

Nd2a: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 뒷말과 자유롭게 결합.

따름 {명}(의존) ('르'이나 '을'로 된 용언 아래에 쓰이어) '오로지 그것'의 뜻을 나타냄. *그저 웃기만 할 ~이다. *진리는 하나가 있을 ~이다.

{POS Noun
SubCat Nd2a
PreWord AdnL
PostMorph Jab }

Nd2b: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나머지 {명}(의존) (용언의 '-ㄴ/-은/-던' 끝 아래에 쓰이어) '끝에', '결과에' 따위의 뜻. *감격한 ~ 눈물을 흘렸다. *고민하던 ~ 찾아 나섰다. *어려움을 겪은 ~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POS Noun
SubCat Nd2b
PreWord AdnD AdnE
PostMorph Null
PostWord }

즈음 {명}(의존) 일이 어찌될 무렵. *그가 떠나려 할 ~에 김 씨가 찾아왔다

{POS Noun
SubCat Nd2b
PreWord AdnL
PostMorph Null Loc }

Nd3a: 체언류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자유롭게 결합.

가량^2[가:-](假量) {명}(의존) (수사나 수량과 관계되는 명사 아래에 쓰이어) '쯤'의 뜻을 나타내는 말. *열명 ~. *선 살 ~. *얼마 ~.

{POS Noun
SubCat Nd3a
PreWord Nf{Quant}(예: 얼마) Nc
PostMorph Null Tossi Jab }

나절 {명}(의존) &1 낮의 어느 무렵이나 동안. *아침 ~. *점심 ~. *저녁 ~. &2 하루 낮의 절반쯤 되는 동안. *한 ~. *반 ~.

{POS Noun
SubCat Nd3a}

PreWord Nf
PostMorph Null Tossi}

Nd3b: 체언류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백^5(白) {명}(의존) 글말에서, 말하는 이의 이름 따위 아래에 쓰이어 '사됨(말씀드림)'을 나타냄. *주인 ~.

{POS Noun
SubCat Nd3b
PreWord Nf
PostMorph Null}

Nv: 부사적 의존 명사

Nv1b: 모든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족족^1[-쪽] {명}(의존) '하나하나마다'의 뜻. *보는 ~ 잡아라. *가는 ~ 정 들여 놓았다. *오는 사람 ~ 다 그 모양이다.

{POS Noun
SubCat Nv1b
PreWord Nf AdnN
PostMorph Null }

Nv2b: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고-로^6(故-) {명}(의존) (용언의 '-ㄴ/-는/-은' 풀 다음에 쓰이어) '까닭에', '때문에'의 뜻. *명령이 내린 ~ 떠나야 한다. *이것은 독버섯인 ~

먹으면 안 된다.

{POS Noun
SubCat Nv2b
PreWord AdnE AdnN
PostMorph Null }

대로^6 {명}(의존) &1 '그 모양(상태)으로'의 뜻. *본 ~ 느낀 ~ 쓴 글. &2 '~을 좋아서', '~하는 데 따라'의 뜻. *시키느 ~ 하겠나이다. &3 '~하는 바와 같이'의 뜻. *말씀하신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 '~하는 족족'의 뜻. *보는 ~ 사 달라 한다. &5 '만큼'의 뜻. *되는 ~ 주시오. *하고 싶은 ~ 다 해보았다. *좋을 ~ 하시오. *될 ~ 되어라.

{POS Noun
SubCat Nv2b
PreWord AdnD AdnE AdnL AdnN CiAdnN
CrAdnN
PostMorph Null Toss{는, 만}}

Nv3b: 체언류 관형어와 결합, 뒷말과 결합 제한.

남짓[-진] {명}(의존) 어떤 수량에 차고 조금 남음이 있는 정도. *열 개 ~. *서 되 ~. *스무 살 ~. *한 달 ~. |같은| 나마^3.

{POS Noun
SubCat Nv3b
PreWord Nc
PostMorph Null ToAcc ToGen Jab }